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 16화 선정(禪定)에 든 싯다르타



이 때 수자타는 아버지인 우루빌라 마을 촌장의 명령으로 숲의 수신(樹神)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한 제물(祭物)을 가지고 있었다. 수자타는 수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제물들을 싯다르타 앞에 공손히 내밀었다. 앞뒤 분별없이 목욕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강물에 뛰어 들었던 싯다르타가 극도의 영양부족으로 지금 불어오는 미풍도 이기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싯다르타는 그 소녀의 정성을 받기로 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도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2500년전 인도의 생활풍습에 나체의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옷은 다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나 전쟁 중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무더위 속의 인도에서 여자까지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가리는 정도 외엔 옷을 입지 않았고 더욱이 수도자들에게는 옷은 사람에게 사치와 탐욕을 일으키며 악의 구렁덩덩으로 유혹하는 물질로 판단됐던 것이다. 육체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현대적인 개념으로 당시 인도의 풍습을 이해하려들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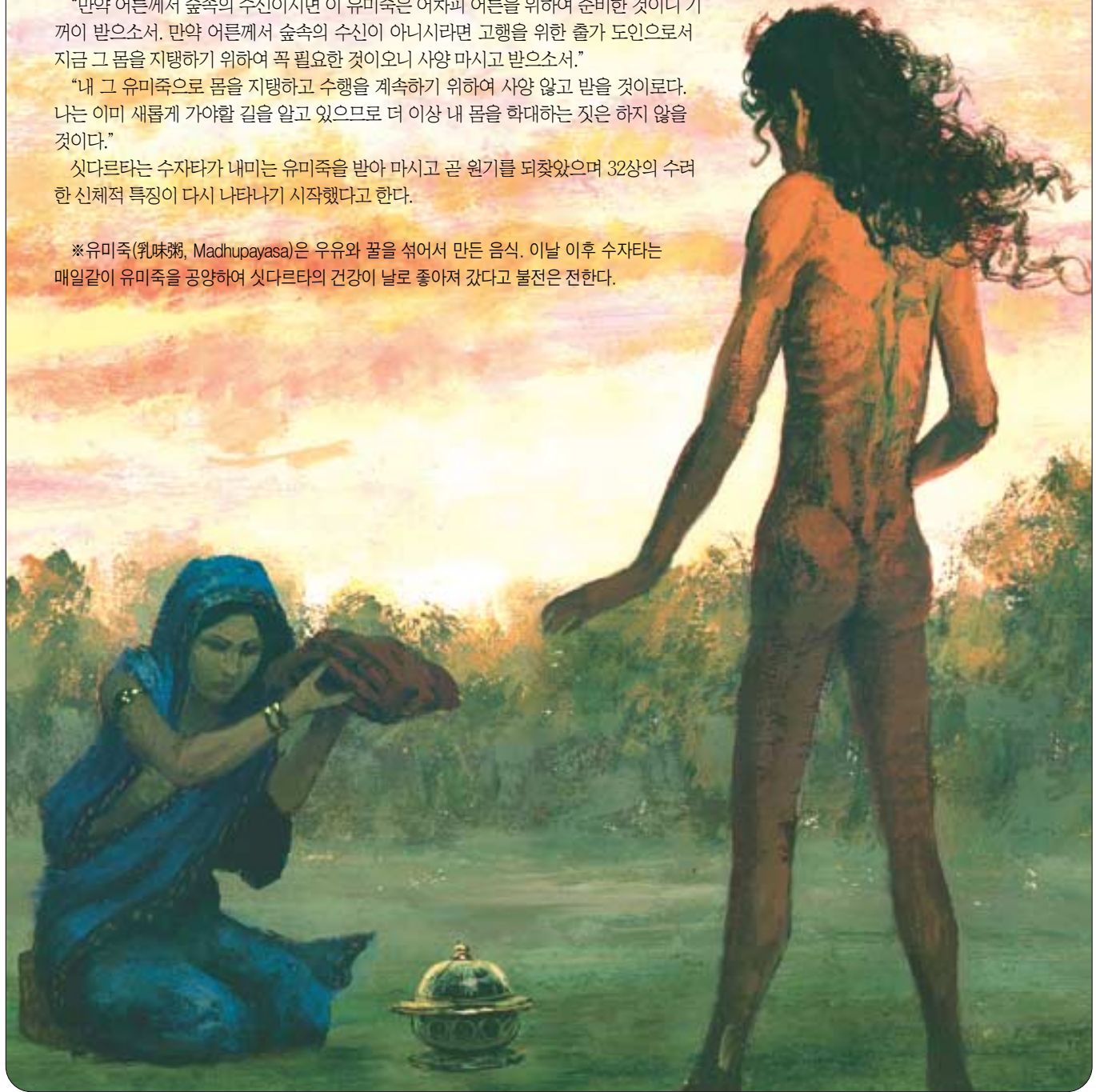
수 자타가 내민 카사(Kasaya)로 싯다르타의 몸이 따뜻하게 보호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고픔이 엄습해 왔다. 그것 역시 싯다르타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 수자타는 역시 수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유미죽을 내밀었다.

“만약 어른께서 숲속의 수신이시면 이 유미죽은 어차피 어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 가까이 받으소서. 만약 어른께서 숲속의 수신이 아니시라면 고행을 위한 출가 도인으로서 지금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오니 사양 마시고 받으소서.”

“네 그 유미죽으로 몸을 지탱하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양 않고 받을 것이로다. 나는 이미 새롭게 가야할 길을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내 몸을 확대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싯다르타는 수자타가 내미는 유미죽을 받아 마시고 곧 원기를 되찾았으며 32상의 수려한 신체적 특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미죽(乳糜粥, Madhupayasa)은 우유와 꿀을 섞어서 만든 음식, 이날 이후 수자타는 매일같이 유미죽을 공양하여 싯다르타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갔다고 불전은 전한다.



바 로 이때, 마을로 탁발 나갔던 5명의 수행자들이 되돌아 오다가 싯다르타가 수자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비록 적은 음식이라도 싯다르타를 위하여 준비하여 왔는데 그토록 거룩해 보이던 싯다르타가 역시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지난 5년간의 수행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아아 이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5인의 수행자들은 참으로 경악하여 서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있었다.

“사카족의 왕자여, 어찌하여 그동안 피나는 고행을 그리 쉽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그토록 갈망하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보였는데 끝내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낱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어찌 하리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왕자님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도 왕자의 수행법을 흉내 내어 왔는데 오늘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우리 5인의 친구들과져 버렸으니 하늘 쳐다보기가 부끄러워 왕자와 같이 있을 수 없게 됐소. 이제부터는 왕자님 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오.”

“네 이미 불과 불빛을 예로 들어 금식의 고행으로 뜻을 이를 수가 없음을 설명하였소. 지금까지 나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검증해 내었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수행의 길을 갈 것이오.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제 사카의 왕자는 완전히 타락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의 타락한 모습을 볼 이유가 없다.” 크게 실망한 5인의 고행자들은 카운딘나(Kaundinya, 橋陣如)를 앞세워 모두가 그곳 고행림(苦行林, Tapovana)을 떠나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 Mrgadava)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 제 홀로 남은 싯다르타는 그의 수행길의 마지막이 될 장소로 보드가야(Bodhgaya)의 금강좌(金剛座, Vajrasana)에 올라 한 그루의 큰 뽕나무(Pipal)나무 아래를 정하니 때마침 스리(Sri, 吉祥)라고 불리는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쿠사(Kusa)풀을 모아 짚아줌으로서 성도(成道)의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게 되었다. 이때의 이 뽕나무는 싯다르타가 해탈하여 붓다(Buddha)가 된 후 'Bodhitree(보리수)'라고 부르게 되니 '보리수'란 'Bodhidruma'로 부처님의 정각(正覺)을 이루신 나무라는 뜻이다.

“이제 이 자리에서 나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좋다. 나는 나의 목표인 일체중정(一切種智)을 얻을 때까지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다.” 싯다르타는 최후의 결심을 하고 깊은 선정(禪定)에 들었다.

길고 긴 미로를 헤매다가 이제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에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낸 싯다르타의 행진을 과연 그 누가 있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싯다르타가 해탈의 경지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 왔음을 예감하고 심히 불안해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마왕 파피야스(魔王波旬, Mara Papiyas)'다.

